

대림산업, 1/4분기 영업이익 399억원 금감

대림산업은 2006년 1/4분기 영업이익이 399억원으로 2005년 4/4분기보다 69.8%, 2005년 1/4분기보다 35.3% 감소했다고 4월14일 공시했다.

매출액은 88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.2%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419억원으로 62.8% 감소했다.

대림산업 관계자는 “1/4분기에는 성과급 지급에 따른 일시적인 판매관리비 증가와 석유화학부문의 경기하락에 따른 지분법 평가이익 감소로 경상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“앞으로 민간건축 및 국내외 플랜트 수주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건설관련 지분법 평가 대상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수익성은 점차 개선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한편, 1/4분기 공사 수주액은 1조5630억원으로 54% 정도 늘어 총 수주 잔고액이 10조8419억원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. (서울=연합뉴스 서미숙 고미혜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4/17>